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3개부처-금융권-산업계가 함께 모였습니다.

- 금융위·과기정통부·산업부 3개부처 차관 공동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3차관-금융권-산업계 간담회(밋업) 개최
- 향후 금융-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어
업계별·금융업권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주재로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간담회 시작전에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 **일시/장소** : ‘25.10.1일(수) 10:00~11:30/ 서울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
- **참석자** : 총 70명 【참고 : 간담회 참석자 명단】
 - (정부)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산업부 문신학 차관 등
 - (금융권) 국민·신한·하나·우리·NH·iM뱅크 투자 및 여신담당 부행장, Goldman Sachs 및 Credit Agricole 한국대표, 회계법인 대표, 투자증권사 CIB부문, PE 및 VC 업계 대표 등
 - (첨단전략산업기업)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리벨리온, 퓨리오사, LG유플러스, HD현대로보틱스, KT 및 중소·중견기업 등
 - (관계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II. 정부측 인사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인 바, AI 3강으로의 도약을 견인할 AI 분야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20만장 규모의 GPU 인프라 확보 등 AI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마중물도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과 국민·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으로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인만큼,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였다.

뒤이어,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 및 메가프로젝트의 마련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되지 않고 AI 대전환을 비롯한 첨단산업 및 생산적 영역에 쓰여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하면서, ‘국민성장펀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책임자라면 어떻게 의사결정할지를 물었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산업계, 금융권의 전문가 및 사업자간의 더 많은 네트워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전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긴요한 정책도구”라며,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접점에 있는 산업부가 “중장기 산업정책적 관점, 산업생태계 및 공급망, 지역 균형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지원과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III. 밋업 주요내용

※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발언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뒤이어 국민성장펀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 및 QA세션을 진행하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개별투자건의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의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치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적극적으로 민간 금융권 경력자의 채용과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민성장펀드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가칭)‘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를 두어 소통·자문구조를 체계화해나간다.

이와함께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재정·지자체·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간 소통도 보다 내실화해나갈 예정이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규모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별 건 단위의 투자손실을 먼저 분담하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술기업에도 인내 자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권도 생산적금융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투자 및 신규 대출 프로그램 신설노력을 소개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오늘 밋업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윤홍권 (044-202-624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2-6244)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수연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권순범 (044-203-423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외부 참석자 명단

【산업계 참석자 명단】			【금융권 참석자 명단】		
이름	직함/직위	특징(업종)	이름	직함/직위	특징
서건기	SK이노베이션E&S CFO	액화수소	윤원기	IMM인베스트먼트 전무	VC/PE
정성엽	동진씨미켐 CFO	반도체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	VC/PE
김성태	포스코퓨처엠 기획실장	배터리	강동민	뮤렉스파트너스 대표	VC/PE
장일순	더블유씨피 상무	배터리	이경형	스틱인베스트먼트 파트너	VC/PE
전권	성일하이텍 이사	배터리	이강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투자부문 대표	VC/PE
신성규	리벨리온 CFO	반도체	윤준희	bnw인베스트먼트 대표	VC/PE
권영석	두산로보틱스 팀장	로봇	김봉수	K2인베스트먼트 대표	VC/PE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미래차	김충원	LX인베스트먼트 대표	VC/PE
김영광	SK온 부사장	배터리	홍원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	VC/PE
양승주	DB하이텍 CFO	반도체	백창열	기업은행 CIB그룹장	은행
김성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방산	김영철	기업은행 투자금융부장	은행
팽동혁	SK이노베이션E&S 팀장	액화수소	송용훈	국민은행 기업고객 부행장	은행
김동현	SK온 팀장	배터리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 부행장	은행
여명희	LG유플러스 CFO	인공지능	송용섭	우리은행 여신지원 부행장	은행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상무	로봇	이영준	하나은행 여신그룹 부행장	은행
박제원	HD현대로보틱스 CFO	로봇	장호식	신한은행 CIB그룹장 부행장	은행
허도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바이오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부행장	은행
주기남	유림테크 CFO	미래차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은행
하창우	퓨리오사AI 상무	인공지능	조상용	국민은행 인프라영업 본부장	은행
김녹원	딥엑스 대표	인공지능	김승관	신보 경영기획부문 이사	신보
이동재	뤼튼 테크놀로지스 이사	인공지능	최재준	Goldman Sachs 한국대표	외국계
채명수	노타 대표	인공지능	조성민	Credit Agricole 한국대표	외국계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인공지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대표	회계법인
조정민	SK브로드밴드 본부장	인공지능	길기완	안진회계법인 대표	회계법인
윤영균	KT 상무	인공지능	민덕기	한영회계법인 본부장	회계법인
정비오	씨알에스큐브 CFO	바이오	양진혁	삼정회계법인 본부장	회계법인
제유환	동구바이오제약 팀장	바이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기타			
김민우	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기타			